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민주 "권력으로 야당 탄압" 맹공

'성남FC 후원금' 의혹 2년 전 무혐의 결론…의원 동행 당차원 대응
李 "탄압으로 정부 무능 감출 수 없어…검찰 향한 민심 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대대적인 엄호에 나섰다. 2년 전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의혹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또 당이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 수사에 대한 민심의 역풍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검찰과 여권을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한 경쟁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되살려 어떻게든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우려먹을 것도 없는 사안을 계속 우려먹겠다고 (검찰이) 불만 잔뜩 땐다"며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불만 때면 솥단지만 태워 먹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조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향한 공세인 만큼 이에 맞춰 당도 단일대오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의 성격이 있다"며 "야당 대표 수사에는 당이 함께해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굉장히 오랫동안 법리 논쟁을 한 사안으로 소환 조사해 욕보이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과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전(前)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규탄하는 회견을 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또 당의 움직임에 맞춰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추후 출석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 일부 인사들만 함께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비명(비이재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 출석 길에는 지도부 일부 인사들과 당 관계자들이 함께 가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지도부) 동행 없이 (검찰에) 가는 게 민생과 동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검찰 출석 길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소환조사를 마친 뒤,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목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이 대표의 소회를 비롯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개헌·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출범

국회의장 직속…김진표 의장 "승자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면서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이겠다. 동력은 의장이 실어줬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을 진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점휴업 임시국회 … 박홍근 "의장 결단으로 국회 열 것"

민주 최고위…여당에 '北 무인기 침투 사건' 긴급현안질의 협조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한시가 급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 문은 닫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등에 협조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의 문은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안 목록도 안 내놓고 왜 막고 있냐고 어거지(억지)를 부려서야 되겠느냐. 왜 (국회) 문은 닫고 임시회는 하지 말자고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남 탓 전문이다 보니 비서실장도, 또 집권 여당까지 이런 나쁜 버릇만 닮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끝내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과, 국민 여론, 유가족 뜻을 다 살펴 가면서 (이 장관 탄핵 소추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선 "이 장관이 직접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라고 밝힌 이상 책임의 근거도, 탄핵의 사유도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이상민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국회는 정무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선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 지휘라인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北 내통설' 제기 與 신원식 징계안 제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 김병주에 "북과 내통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자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공당인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3성 장군 출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북한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신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 책임을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

▶ 중심 상업지구
(유흥 적합)

(6층, 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융 4억5천)

010-2614-9801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